

소위 강조구문과 “것”의 의미

염재일*†

홍익대학교

Jae-Il Yeom. 2014. So-called Cleft Constructions in Korean and Some Meanings of “kes”. *Language and Information* 18.2, 103–122. In a so-called cleft (or, pseudocleft), the *kes*-phrase seems to refer to a person, even though *kes* is generally incompatible with human beings. In this paper, I claim that in a cleft, the *kes*-phrase can refer to a concept, and that a concept of human beings is not a person. I give some pieces of evidence for this claim. In a cleft, the *kes*-phrase cannot be pluralized only when it is supposed to denote a human being. Moreover, in such a case, the NP before the copula cannot be interpreted as the meaning of a predicate. Furthermore, in a cleft two *kes*-phrases are not conjoined with (*k*)*wa* only when they seem to denote human beings. All the observations can be explained by the claim that the *kes*-phrase denotes a concept in such cases. A concept cannot be used as a predicate, pluralized, or conjoined to refer to objects that are subsumed under a concept. When the *kes*-phrase denotes a concept, the cleft sentence is an identity statement. (Hongik University)

Key words: Korean pseudocleft, *kes*, plural, conjunction, specificational, identity statement, individual concept

1. 들어가기

“것”의 기본적인 특징으로는 혼자 사용될 수 없고 항상 어떤 명사수식어구의 수식을 받아야 한다. 그 수식어구는 일반적으로 관계절로 간주된다. 그런데, “것”-구 중에서 소위 말하는 강조구문에 쓰이는 것은 다른 구문에 쓰이는 것과 의미적으로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 특이한 특징들 때문에 강조구문을 별도의 구문으로 가정하고 그 특징들을 설명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일반적으로 “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 본 논문은 2013 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세 분의 익명의 심사자의 논평으로 논문의 논지가 조금더 분명해졌다. 일부 오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논문의 부족함이나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의 몫이다.

† 121-791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영어영문학과, E-mail: jiyeeom@hongik.ac.kr

않는데, 소위 강조구문에서는 “것”이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된다고 관찰되어 왔는데, 이 경우에도 “것”은 비인격체를 나타내는 여러 의미 중에 하나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¹

강조구문에서 계사 앞에 오는 것이 명사구인 것과 후치사구인 것이 있는데 이를 구분하여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a. 미나가 만난 것은 인호이었다.
- b. 미나가 되고 싶은 것은 의사이다.
- c. 미나가 만난 것은 의사이었다.
- (2) a. 미나가 인호를 만난 것은 역에서였다.²
- b. 미나가 인호를 만난 것은 어제였다.
- c. 미나가 인호를 만난 것은 어제 역에서였다.

그런데 강조구문에 대응되는 구조 중에서 주어와 계사(linking verb) 구에 있는 명사구가 뒤바뀐 구조도 가능한데 이것을 역강조구문이라고 하자. Jhang(1995), Kang(2006) 등에서 지적하였듯이 역강조구문이 허용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³

- (3) a. ?? 인호는 미나가 만난 것이다.
- b. 의사는 미나가 되고 싶은 것이다.
- c. ?? 의사는 미나가 만난 것이다.
- (4) a. *역에서는 미나가 인호를 만난 것이다.
- b. *어제는 미나가 인호를 만난 것이다.
- c. *어제 역에서는 미나가 인호를 만난 것이다.

¹ 강조구문에서 “것”구가 사람을 가리킨다는 관찰은 국어의 강조구문을 연구하는 많은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다. Jhang(1995), Kang(2006), Kim and Sells(2007) 등. 한 심사자는 이런 관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언어는 무의식적인 것인데, 의식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² 이 문장에서 “것” 대신 “곳”을 사용하면 “역에서” 대신 “역”만 쓸 수 있다. “것”을 쓰더라도 후치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생략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구조는 이와 같이 불규칙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따로 논하지 않겠다.

- (i) a. 미나가 인호를 만난 곳은 역(??에서)이었다.
- b. 미나가 그 책을 준 것은 인호(에게)였다.
- c. 미나가 그 책을 받은 것은 인호(에게서)였다.

³ “것”이 아래와 같은 구문을 이룰 경우 일부의 구가 종속절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데 (3-4)에 있는 문장들이 그런 구조로 이해하면 모두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이 구조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 (i) 미나가 인호를 역에서 만난 것이다.

강조구문에서는 후치사구가 주어라 될 수 없다는 구조적 제약에 때문에 (2)에 있는 문장들은 역강조구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명사구가 강조된 강조구문은 (3b)처럼 역강조구문을 허용하는 것도 있고 (3a,c)처럼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런데, 강조구문에 대응되는 역강조구문이 허용되는데는 강조되는 표현이 사람을 나타내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은 계사 앞의 명사구가 사람이 아닌 예들인데, 이들은 모두 역강조구문을 허용한다.

- (5) a. 미나가 산 것은 가방이다.
b. 가방은 미나가 산 것이다.
- (6) a. 미나가 푼 것은 이 문제이다.
b. 이 문제는 미나가 푼 것이다.

이것은 역강조구문에서는 “것”이 인격체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가리키는 대상을 무생물로 취급함으로써 모욕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것”은 인격체를 나타내는 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강조구문에서만 (1)에서처럼 “것”이 인격체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3b)에서처럼, “것”이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역강조구문이 허용되는 것을 보면 강조구문에서 사용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구조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미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강조구문의 “것”은 다른 구문에서 가질 수 없는 의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 (7) 가설 1: 강조구문에서의 “것”은 인격체를 나타낼 수 있지만, 다른 구문에서의 “것”은 인격체를 나타내지 못한다.
가설 2: 모든 구문에서 “것”은 인격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 두 가설 중에서 가설 2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설 2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이면서 인격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 추상적인 개념을 가리킨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2장에서는 강조구문에서 “것”-구가 한정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계사 앞에 오는 구가 술어가 아닌 경우 강조구문이 동일성 문장이라는 주장의 기초가 된다. 3장은 이 논문의 주요 주장을 담는데, 우선 계사 앞에 후치사구가 올 경우 “것”-구는 상황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계사 앞에 오는 구가 “것”-구 내에서 논항 자리를 채울 표현이라면 “것”-구는 논항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에 근거한 관계절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계사 앞에 나타나는 구와 연계되어 마치 계사 앞 구가 “것”-구 안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계사 앞 구가 인격체를 나타내는 것 같은 경우 일반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이면 종류를 나타내고 고유명사이면 개체개념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4장에서는 역강조구문이 왜 강조구문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가를 설명한다. 5장에서 논문의 논의를 정리한다.

2. 한정성

관계절이 무언가의 특성을 나타내면 “것”은 이 특성을 받아서 무언가를 가리켜야 한다. 한편, “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한정성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구문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국어에서 결정사나 지시사(demonstrative)가 없는 일반명사구(bare NP)가 가리킬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일 수도 있고 비한정적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것”-구도 일반명사구와 마찬가지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8) a. 인호가 뭔가를 샀는데, 인호가 산 것은 매우 가벼웠다.
 b. 먹을 것이 없다. 인호가 새로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시는 것뿐이야.

(8a)는 앞에 이미 소개된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므로 한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8b)는 “것”-구가 새로운 것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비한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것”-구는 일반명사구와 마찬가지로 비선택적 결속(unselective binding)도 가능하다.

- (9) a. 인호는 보통/항상 미나가 주는 것을 거절해.
 b. 인호는 미나가 주는 것마다 거절해.

위 예는 “것”-구가 임의로 “보통/항상”이나 “-마다”에 의하여 결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말에서 무결정사/무지시사 일반명사구가 해석되는 방식과 동일하다. 따라서 “것”은 일반명사로 보는 것이 옳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해석 이면에 각 형태소의 기본 의미가 있고 이것이 문법에서 허용하는 과정을 거쳐 그와 같은 해석들을 가지게 된다. 국어에서의 일반명사의 기본의미는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한다. 물론 이것이 명사구를 형성하여 문장이 쓰이면 의미적 환경에 따라서 종류를 논항으로 취하는 동사와 쓰이면 종류를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특성을 나타낸다. 특성을 나타낼 경우 논항 자리에 쓰이면 아래 (11)의 규칙에 따라서 한정성 해석을 받거나 비한정성 해석을 받고, 술어 자리에 쓰이면 그대로 특성으로 사용된다.

우선, 종류와 특성 사이의 의미의 변화에 대해서는 Chierchia(1998)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10)에 그의 기본적인 생각이 주어져 있다.

- (10) a. 한 종류 k 와 임의의 세계 w 에 대하여 술어 P_k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_k = \lambda w \lambda x [x \leq k(w)]$$

$k(w)$: k 종류에 속하는 w 에서의 모든 개체의 합

$x \leq k(w)$: x 는 개체 합 $k(w)$ 의 부분

- b. 한 특성(술어) P 와 임의의 세계 w 에 대하여 종류 k_P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k_P = \lambda w \iota x [P(w)(x) \wedge \neg \exists x' [x \leq x' \wedge P(w)(x')]]$$

(단, k_P 는 종류로서 확립됨.)

종류는 모든 세계에 대하여 그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 모두의 합으로 표시되고, 특성은 각 세계에 대하여 그 특성을 가지는 개체들과 그 합들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특성을 나타내는 개체들의 합은 복수명사의 의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종류를 나타내는 표현은 일종의 “개념”으로서 어떤 특정한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 추상적인 존재이지만, 특성은 특정한 세계를 정하면 그 세계에서 그 특성을 가지는 구체적인 개체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⁴

종류가 아닌 경우 특성을 나타내고, 특성을 나타내는 명사구가 논항 자리에 쓰이면 Partee(1986)에서 제안하듯이 다음의 두 과정 중에 하나를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한정적으로 해석되거나 비한정적으로 해석된다.

(11) a. ι -operation: $P(w) \rightarrow \iota x [P(w)(x)]$ ($\langle e, t \rangle \rightarrow e$)

b. \exists -operation: $P(w) \rightarrow \lambda Q \exists x [P(w)(x) \wedge Q(w)(x)]$ ($\langle e, t \rangle \rightarrow \langle \langle e, t \rangle, t \rangle$)

그래서 (11a) 과정을 겪으면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서 P라는 특성을 지닌 개체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한정적 의미이다. (11b)의 과정을 겪으면 주어진 상황에서 P의 특성을 지닌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특성을 지닌 것이 있다고 존재만을 주장하는 비한정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것”-구에 적용해보자. 우선 관계절은 특성의 의미유형을 가진다. 그리고 관계절은 “것”을 수식하면서 명사구를 형성한다. “것”은 명사이므로 원래 종류를 나타내야 하지만 관계절에 의하여 수식되는 자리에 오면 특성을 나타내는 술어가 된다. 그런데 “것”이 일반명사와 다른 점이 있다. 부가어 없이 독립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과 가리키는 것이 인격체가 아니라는 전제를 유발한다는 점이다.⁵

⁴ 물론 실제로 종류들을 논항으로 취하는 술어들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기본 논의를 이런 경우에 확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⁵ 또한, 일반명사와 달리 적시되지 않은 어떤 것이 의미 합성과정에서 추가되는 의미는 생기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부가어절에 공백이 없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 (i) a. 인호가 만난 이유
- b. 고기가 타는 냄새

(i)에서 이유나 냄새를 나타낼만한 것이 명사부가어절 자체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명사의 의미와 합성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의미가 생긴다. 그런데, (ii)에서 처럼 명사부가어절이 “것”과 합쳐지면 이런 의미가 생기지 않는다.

- (ii) a. 인호가 만난 것
- b. 고기가 타는 것

따라서 α 라는 관계절에 의하여 수식되는 “것”-구의 의미가 다음과 같아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12) \llbracket \alpha \text{ 것} \rrbracket = \lambda w \lambda x: x \text{ 는 비인격체 } \llbracket \alpha \rrbracket^w(x)$$

여기서 “ x 는 비인격체”라고 한 부분은 전제부분으로 인격체이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것”-구의 의미는 특성의 의미유형을 가지며, 통사적 위치에 따라서 (11)에 주어진 두 과정을 겪을 수 있다. 이 두 과정은 선택적이므로 명사구를 한정명사구와 비한정명사구로 만든다. 따라서, “것”-구가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네 가지 (A, Ba, Bbi, Bbii)이다.

(13) “것”-구의 의미:

A. 종류 (개념) - 한정적 논항 ($\langle s, e \rangle$)

B. 특성

a. 술어 ($\langle s, \langle e, t \rangle \rangle$)

b. 논항

i. 한정적 명사구 (e)

ii. 비한정적 명사구 ($\langle \langle e, t \rangle, t \rangle$)

여기서 종류는 개념에 속하며 문장에서 종류로 사용되는 것은 항상 한정적 논항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더 이상 개체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다. 특성이 된 후에야 술어나 논항으로 사용되면서 그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을 나타낸다. (Ba)에 서처럼 술어로 쓰일 때는 개체들에 대하여 서술하는 것으로 쓰이고, 논항의 자리에 나타나면 어떤 술어가 나타내는 상황에 개체로서 참여자가 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경우 한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비한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강조구문에서의 “것”-구는 이 중에서 항상 전제를 유발하는 한정명사구로만 사용된다. 국어에서 명사구의 한정성 표지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맥락을 통하여 확인해볼 수 있다.

(14) A: 인호가 누구를 {만나냐, 만났냐}?

B: 인호가 {만나는, 만난} 것은 미나야.

(15) ?? 인호는 그 곳에 일찍 갔어. 인호가 그 곳에 왜 갔는지 몰랐어. 그런데, 인호가 만난 것은 미나였어.

(14)에서 인호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내용이 이미 소개된 후에 이것을 강조구문의 전제부분에 사용되면 문장이 자연스럽다. 반면에, (15)에서는 강조구문의 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인호가 그 곳에 왜 갔는지 몰랐어”와 같은 표현에 의하여 부정되면 부자연스러워진다. 이것은 강조구문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것”-구의 내용이 전제될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강조구문에서의 “것”-구는 이미 청자가 아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이것은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명사부가어절의 의미와 합성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조구문에서 주어인 “것”-구는 전제를 유발하는 한정적 표현이라고 하였는데, 한정적 명사구도 초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정성과 초점은 별개일 수 있다. 다음에서 A의 질문에 B가 대답을 하고 C는 B의 대답을 정정하는 것이다.

- (16) A: 미나가 누구야?
 B: [인호를 도와준 계]_F 미나야.
 C: 아니야. [[진아를]_F 도와준 계] 미나야.

(16)에서 B의 발화는 주어에 초점이 주어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발화가 자연스러우려면 A가 인호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B의 말을 부정하는 C의 발화에서도 “진아를”에 강세가 주어지면서 “진아를 도와준 계”가 초점구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조”구문이라고 하지만, 계사가 이루는 동사구가 항상 초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어가 만드는 전제 부분이 초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것”-구가 가리키는 바는 청자가 알 수 있어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것은 “것”-구의 한정성이다.

3. 강조구문에서의 “것”의 의미

3.1 부가어 전치사구 강조

일반적인 가정은 강조구문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 (17) 변형패턴: [A C B]다 ⇒ [A — B](으)ㄴ 것은 C이다.

이 구문은 사람에 따라서 분열문(cleft) 혹은 의사분열문(pseudocleft)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것”-구의 다양한 용법에 비추어 강조구문에 쓰이는 “것”이 다른 구문에 쓰이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기 어렵다. 강조구문의 “것”-구가 관계절의 공백에 해당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다른 관계절과 동일한 것 같다.

그런데, 강조구문이 부가어를 강조할 때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강조구문에서 논항이 계사 앞에 오면 “것”을 일반명사로 바꿀 수 있다. (1a)와 (1c)에서 “것”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반면에, Hiraiwa and Ishihara(2002)가 일본어에서 지적하였듯이, 계사 앞에 후치사구가 오면 “것”을 일반명사로 바꿀 수 없다.

- (18) 미나가 인호를 만난 {것, ?? 장소}은/는 역에서였다.

“것” 대신에 일반명사 “장소”로 바꾸면 문장이 이상하다.

그리고, 부가어가 강조될 때는 부가어가 항상 관계절의 최상위절과 연관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 (19) ?? 미나가 인호를 만났다고 생각되는 것은 역에서였다.

“역에서”는 생각되는 장소는 아니고 종속절의 동사인 만남의 장소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 연관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문장이 이상한 것이다. 이것은 논항이 강조되는 문장과 구분된다.

- (20) [e 인호를 만났다고 생각되는] 것은 미나였다.
 [미나가 e 풀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문제이었다.

여기서는 “것”-구가 가리키는 것은 관계절 속의 종속절의 공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부가어가 강조될 때 “것”-구가 가리키는 것은 논항이 강조될 때와 다르다.

여기서 후치사구가 계사 앞에 나타나는 경우 “것”-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한 한 가지 단서는, 빠진 논항이 없는 경우 “것”-구는 최상위절이 기술하는 상황이나 사실을 나타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 (21) ?? 미나가 인호를 만났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았다.

“보다”는 지각 가능한 사건을 목적으로 가져야 하는데, 생각되는 것은 지각이 가능하지 않고 만나는 것이 지각이 가능한데, 이 문장이 이상한 것은 “것”-구가 최상위절이 나타내는 상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단서는 Koizumi (2000), Hiraiwa and Ishihara (2002), Cho *et al.* (2008)가 지적하듯이, (2c)에서처럼 부가어가 여러 개가 강조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것”-구가 가리키는 것이 관계절의 공백에 의한 것이라면 한 개만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논항이 강조될 때 하나만 강조되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 (22) *[e e 만남] 것은 미나 인호이었다.

그리고, “것”-구가 가리키는 것이 논항 공백과 연관될 때는 통사적 섬제약을 받지 않는 것 같다.

- (23) [인호가 e_j 던진 $_j$] 공이 가장 멀리 갔다.
 [[e_i e_j 던진 $_j$] 공이 가장 멀리 간 $_i$] 것은 인호이었다.

(23a)에서 “인호가”는 관계절 속에 있었는데, (23b)에서 이것이 강조구문의 계사 앞에 나타났다. 작은 관계절 “[e_i e_j 던진 $_i$]”에 공백이 두 개이고 하나는 작은 관계절과, 다른 하나는 더 큰 관계절과 연관지어 해석된다.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Na and Huck(1993)에서 지적하였듯이 국어나 일본어에서는 관계절이 섬제약을 받지 않는다.⁶

이와 같이 논항이 강조될 때는 강조되는 구가 관계절 깊숙히 파묻혀 있을 수 있고 또한 한 개만 강조되는 것과 비교해서 둘 이상의 부가어가 강조되기도 하고 최상위절과만 관계가 있는 것은 관계절 내의 공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 단서는, 부가어가 강조될 때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⁶ 일본어에서도 같은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Hiraiwa and Ishihara (2002) 참조.

(24) 아무도 점심을 먹지 않은 것은 어제였다.

여기서 “어제”는 점심을 먹는 사건이 없었던 상황의 시간을 나타낸다. 이것은 “것”-구가 나타내는 것이 동사가 가지는 의미역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부가어가 종속절의 어떤 의미역을 가지는 논항이 아니고 또한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이며, 이것이 또한 최상위절이 나타내는 상황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25) 아무도 점심을 먹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 문장의 의미는 점심을 먹는 사건이 없는 것을 본 것이다. 사건이 없으므로 부정의 영역 밖에서는 먹는 사건과 관계되는 것은 쓰일 수 없다. 따라서 (24)에서 “어제”는 “먹다”의 의미역과도 관계없고 그러한 사건과도 관계가 없다. 단지 그 먹는 사건이 없는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부가어가 강조되는 것 같은 구문에서 “것”-구는 공백이 있는 관계절에서 그 공백에 의하여 가리키는바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것”-구안의 최상위절이 나타내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조구문에서의 “것”-구의 첫째 의미는 상황이다.

(26) 강조구문에서의 “것”-구의 의미 1: 최상위절이 나타내는 상황

그리고 계사 앞에 나타나는 후치사구의 후치사는 그 상황과 후치사 다음의 명사구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논항이 강조되는 강조구문에서의 “것”-구의 의미들을 살펴보겠다.

3.2 공백과 계사구의 연계

앞에서 말했듯이 강조구문이 논항을 강조할 경우 “것”-구 속의 관계절 깊숙히 파묻혀 있던 논항을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강조구문의 분석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어떻게 “것”-구에 있는 공백과 계사 “이다” 앞에 있는 구 사이에 관계를 맺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통사적 설명 중에 많은 것이 이동 분석인데, 앞에서 보았지만, 강조구문에서 공백과 “것”을 수식하는 관계절 사이에 섬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이점은 이동분석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것이 “것”-구의 관계절을 넘어 계사 앞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과정이다. 섬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강조구문의 관계절이 공백과 연관지어 해석되려면 이 둘을 연결하는 결속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것”의 의미에 관심이 있으므로 결속관계가 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겠다.

결속관계를 가정하려면 “것”구 내에 보이지 않는 대명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과 관계절을 형성하는 어미와 결속관계를 맺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7) [[A e_i C]-(으)ㄴ_i 것{은, 이}] B-이다.

그리고, 관계절 “[A e_i C]-(으)ㄴ_i”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28) \quad [[A e_i C]-(\text{으})\text{ㄴ}_i]^{w,g} = \lambda x . [[A e_i C]]^{w,g[x/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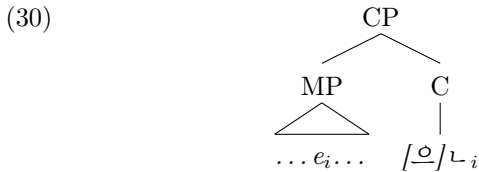
즉, 관계절은 공백에 들어가서 관계절의 나머지와 합쳐 관계절을 참으로 만드는 개체들의 집합 혹은 그에 상응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로 정의될 수 있다. 관계절이나 강조구문의 공백에 해당하는 것과 관계절을 만드는 어미 “(으)ㄴ”이 공지표(co-index)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으)ㄴ”은 그 내부 절에서 공백 자리를 채워서 절을 참으로 만드는 개체들의 집합으로 만드는, 그래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공백과 관계절의 어미 “(으)ㄴ” 사이의 의존관계를 결속으로 보는 것은 이 사이에 섬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9) \quad [[e_i e_j \text{ 단지-}\text{ㄴ}_j] \text{ 공이 가장 멀리 가-}\text{ㄴ}_i] \text{ 것은 인호이었다. (= (23)b)}$$

여기서 e_j 는 작은 관계절과 연계되는 공백이고 e_i 는 큰 관계절과 연계되는 공백이다. 작은 관계절이 섬을 형성하는데, 큰 관계절은 이 섬을 넘어 연계되므로 통사적 이동에 의하여 형성되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결속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결속을 위해서는 관계절을 형성하는 관형형 어미 “(으)ㄴ”이 공백을 성분제어해야 하는데, 관형형 어미를 보문사라고 가정하면 보문사는 자연스럽게 절의 나머지에 속해 있는 것을 성분제어하게 된다.⁷



“것”이 비인격체라는 전제를 제외하면 의미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관계절의 의미가 “것”의 의미와 결합을 하여도 관계절의 의미와 다르지 않으므로 “것”-구의 기본 의미는 관계절이 나타내는 특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11a)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정성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계사구의 의미와 결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사는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1) \quad [-\text{이}] = (i) \lambda w \lambda P \lambda x [P(w)(x)]; (ii) \lambda X \lambda Y [X =_{id} Y]$$

즉, 뒤에 술어가 오면 (i)의 의미로 해석되면 계사는 아무 의미적 기여 없이 그 앞에 오는 술어의 의미대로 해석된다. 그러나 만약 계사구가 술어가 아니면 (ii)에서처럼

⁷ 좀 더 상세히 구분하면 관형형 어미는 '상+시제+서법+보문사'의 결합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AspP, TP, MP, CP를 차례로 형성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단지 많은 요소들이 영형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으)ㄴ”은 상, 시제, 서법이 모두 영형이고 ‘(으)ㄴ’ 자체는 보문사로 간주할 수 있고, “는”의 첫 음소 “ㄴ”은 미완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관형형 어미의 형태는 술어의 상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논문의 논의에 크게 관계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양정석 (2008)에서 다양한 제안을 논의하므로 참조할 수 있으나 여기서도 여전히 상세한 구분은 하지 않는다.

동일성관계로 해석된다. Sharvit(1999)가 지적하듯이 동일성 문장에서는 *X*와 *Y*에 대한 의미적 제약이 없다. *X*와 *Y*는 어떤 의미유형이 되어도 좋다. 계사 앞에 후치사구가 오면 항상 (i)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계사 앞에 논항에 해당하는 표현이 오면 (i)과 (ii) 두 의미로 사용된다. 논항의 예들은 앞으로 논의된다.

3.3 복수표지의 불허와 종류

논항을 강조하는 강조구문의 “것”이 특히 다른 구문과 비교되는 점은 “것”이 일반적으로 비인격체를 가리킬 때만 사용되지만, 강조구문에서는 “것”-구가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아래 예들을 보면 “것”-구가 사람을 나타내는 것 같은 경우 지금까지 논의되면서 고려되지 않은 제약이 있는 것 같다.

(32) ?? 인호가 만난 것들은 의사이었다.

이것은 “것”이 사람이 아닌 경우와 대조된다.

(33) 인호가 산 것들은 가방이었다.

그리고, “것”을 인격체를 가리키는 “사람”으로 바꾸면 복수표지가 사용될 수 있다.

(34) 인호가 만난 사람들은 의사이었다.

따라서, “들”의 사용은 가리키는 것이 인격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특징이 있고 이것이 “것”과 양립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복수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인격체가 아닌 어떤 것을 가리킨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것”-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Kang(2006)은 “것”이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것”이 보문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것”의 구조적 특성을 무시한 편의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것”이 단수형으로 쓰이면 비인격체 조건을 거스르지 않지만, 복수형이 되면 비인격체 조건을 거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것”-구가 단수형일 때와 복수형일 때 가리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을 짐작하게 하는 예는 (3b)에서처럼 역강조구문에서도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경우일 것이다. 이 예의 특징은 “되다”라는 술어는 구체적인 개체를 나타내는 명사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종류를 나타내는 명사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류를 나타내는 명사는 쉽게 술어로 쓰일 수 있다. Chierchia(1998)에 의하면 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등에서도 명사의 기본 의미가 종류이고 이로부터 술어의 의미가 무비용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2c)의 예로 설명하면, “의사”가 사람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사람 개개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는 부류(종류)를 뜻하는 말이고 이것이 (10a)에 제시된 과정을 거치면서 술어로 전환되어 사용될 때는 “것”을 사용하여도 사람을 나타내는 이유로 문장이 이상해지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도 구체적인 개개인 인격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면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들”을 사용하면 이상해진다.

- (35) a. ?? 인호와 진호가 되고 싶은 것들은 의사이다.
 b. ?? 그들이 되고 싶은 것들은 의사(들)이다.

이것은 직업으로서 종류가 그 종류에 속하는 개체가 복수라고 해서 복수표지를 붙여서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국어에서는 복수표지를 사용해서 종류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것” 대신에 일반명사를 사용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36) ? 그들이 되고 싶은 직업들은 의사이다.

단지,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덜 이상한 것은 일반명사를 사용할 경우 비인격체 조건을 어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어에서 종류를 나타내는 표현은 복수를 만들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다.

- (37) a. 벨은 {전화기를, ?? 전화기들을} 발명했다.
 b. {감자는, ?? 감자들은} 앤디스 지역에서 전래되었다.

여기서 “들”을 사용하면 종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종류를 나타내야 한다면 하위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35)와 (36)에서 “것”-구가 종류를 나타내는 경우 “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어의 일반적인 특성에 기인한다.⁸

이것을 다른 인격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계사 앞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것”-구가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 같은 (1c) 예문에서 실제로 “것”-구는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2)에서처럼 복수가 되면 복수형은 종류 전체를 나타내는 용법이 없으므로 개체들의 복수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사 앞 “의사”는 그 개체들에 대한 술어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것”이 인격체 개개인을 나타내므로 비인격체 조건을 어겨서 문장이 이상한 것이다. 이것을 뒷바침하는 증거는 정말로 “의사”가 술어로 쓰이게 해보는 것인데, Higgins(1973)에 의하면 술어로 쓰이면 다른 술어와 연접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적용하여 술어 연접이 이루어지면 문장이 마찬가지로 이상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38) ?? 인호가 만난 것은 의사이고 나이가 많았다.

여기서 “나이가 많았다”는 술어는 주어가 종류가 아닌 개체를 서술하는 표현인데, 이렇게 술어를 더하면 “것”이 비인격체 제약을 어기는 것이 느껴진다. 따라서 원래의 문장에서 “것”-구가 가리키는 것은 개체가 아니라 종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면 “것”-구가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 같은 경우 실제로는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⁸ 국어에서 복수표지 “들”의 여러 용법에 대해서는 염재일(2012) 참조.

이것을 정리하면, (33)에서처럼 계사 앞의 구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면 “것”-구는 개체를 나타낼 수 있고 계사 앞 구는 그 개체들에 대한 술어로 해석된다. 반면에 (32)에서처럼 계사 앞 구가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것이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며, “것”-구와 계사 앞 구가 가리키는 것과 동일성 문장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따라서 “것”-구는 개체를 나타낼 수도 있고 종류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 (39) a. 강조구문에서의 “것”-구의 의미 2: “것”-구 내의 공백에 대응되는 개체 (계사구가 술어인 경우)
- b. 강조구문에서의 “것”-구의 의미 3: “것”-구 내의 공백에 대응되는 종류 (계사구가 술어가 아닌 경우)

그런데, 만약 (1c)에서 “것”-구가 가리키는 것이 종류라면 오히려 문제는 “것”-구 내의 술어가 “만나다”이므로 종류가 아닌 개체를 취하는 동사인데 이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키는가이다. 이것은 Chierchia (1998)가 제안하였듯이 종류가 개체술어와 만나면 국부적으로 개체가 소개되는 방식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1c)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40) \quad \iota x_k[\text{met}(w^*)(e, \text{in}ho, x_k)] =_{id} \text{doctor} \quad (w^* \text{는 실제세계})$$

$$\Rightarrow \iota x_k \exists x [x \leq x_k(w^*) \wedge \text{met}(w^*)(e, \text{in}ho, x)] =_{id} \text{doctor}_k$$

그래서 x 는 w 에서의 전체 복수합개체 $x_k(w)$ 의 일부인 x 가 도입되고 인호는 그 x 를 만난 것이다. 그리고, 계사 앞의 구가 사람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경우에 적용하면 이들 문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5a)는 다음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 (41) a. $\iota x_k \exists x [x \leq x_k(w^*) \wedge \text{bought}(w^*)(e, \text{in}ho, x)] =_{id} \text{bag}_k$
(bag_k 는 종류로서의 가방)
- b. $\text{bag}(w^*)(\iota x [\text{bought}(w^*)(e, \text{in}ho, x)])$

여기서 첫 의미는 인격체가 강조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방”이 종류로 해석되고 “것”-구도 종류를 나타내며 둘이 동일시되는 문장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둘째 의미는 “가방”이 술어로 사용되어 주어는 개체를 나타내고 그 개체에 대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가방”이 술어이므로 “것”-구가 (33)에서처럼 복수도 가능하고 (42)에서처럼 다른 술어와 연결이 가능한 것이다.

- (42) 인호가 산 것은 가방이었고 매우 비싸보였다.

3.4 개체개념의 강조

지금까지 계사와 결합하는 것이 종류를 나타낼 수 있고 술어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일반명사구가 오는 경우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강조구문에는 계사 앞에 종류가 아닌 개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고유명사구가 올 수 있고 개체가 사람인 경우에도 “것”이 사용된다.

(43) 인호가 만난 것은 미나였다.

여기서 “것”이 정말로 개체를 나타낸다면 강조구문에서 “것”이 비인격체를 가리켜야 한다는 제약에 대한 예외적인 구문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단순히 개체만을 가리켜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다음의 문장에서 “키다리 아저씨”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다.

(44) 미나가 만난 것은 키다리 아저씨였다.

실제 세계에서 “키다리 아저씨”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겠지만, 그 사람이 미나에게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여기서 “키다리 아저씨”는 개체개념(individual concept)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45) $id[met(w^*)(e, mina, d)] =_{id} \text{daddy_long_legs}$
 $\Rightarrow id[met(w^*)(e, mina, d(w^*))] =_{id} \text{daddy_long_legs}$

여기서 d 는 개체개념을 값으로 가지는 변수인데, “만나다”라는 술어는 개체에 대한 것이므로 d 와는 의미유형불일치가 일어나서 d 로부터 $d(w^*)$ 의 개체를 도출해야 한다. $d(w^*)$ 는 그 개체개념으로서 가능세계 w^* 에서의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위 문장은 결국 미나는 그녀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는 어떤 사람 $d(w^*)$ 를 만났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면 계사 앞에 고유명사가 온 경우에도 개체개념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동일성 문장을 다루는 상황에서 고유명사도 개체개념을 가리킨다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하자.

(46) a. 미나는 미나야.
 b. 미나는 선아야.

(46a)는 의문의 여지없이 참이지만, (46b)는 그렇지 않다. 만약 각 고유명사가 특정한 개체를 가리킨다면 두 개체가 같으면 가능세계가 어떤 세계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같을 것이고 두 개체가 다른 것이라면 가능세계에 관계없이 반드시 다를 것이다. 그러나 (46a)는 필연적으로 참이고 (46b)는 우연히 참일 수 있다. 그러려면 각각의 이름이 모든 가능세계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되어야 하고 그 값이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같고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달라야 한다. 그리고, (46b)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미나와 선아가 같은 사람인 세계에 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위 문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나타낸다.

(47) a. $[[\text{미나}]] = \{ \langle w1, a \rangle, \langle w2, b \rangle, \langle w3, e \rangle, \langle w4, c \rangle, \dots \}$
 $[[\text{선아}]] = \{ \langle w1, e \rangle, \langle w2, b \rangle, \langle w3, f \rangle, \langle w4, d \rangle, \dots \}$
 b. $[[\text{미나는 미나이}]]^{w1} = 1 \text{ iff } [[\text{미나}]]^{w1} =_{id} [[\text{미나}]]^{w1} \text{ iff } a =_{id} a$
 $[[\text{미나는 미나이}]]^{w2} = 1 \text{ iff } [[\text{미나}]]^{w2} =_{id} [[\text{미나}]]^{w2} \text{ iff } b =_{id} b$
 ...

$$\begin{aligned}
 c. \quad & \llbracket \text{미나는 선아이} \rrbracket^{w1} = 1 \text{ iff } \llbracket \text{미나} \rrbracket^{w1} =_{id} \llbracket \text{선아} \rrbracket^{w1} \text{ iff } a =_{id} e \\
 & \llbracket \text{미나는 선아이} \rrbracket^{w2} = 1 \text{ iff } \llbracket \text{미나} \rrbracket^{w2} =_{id} \llbracket \text{선아} \rrbracket^{w2} \text{ iff } b =_{id} b
 \end{aligned}$$

...

(47a)에 “미나”와 “선아”의 의미가 주어져 있다. (47b)에서처럼 “미나는 미나”라고 하면 어떤 세계에 대하여 해석해도 항상 참인 결과가 생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참인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7c)에서는 어떤 세계에 따라 해석하느냐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w1$ 에서는 미나와 선아는 다른 사람이라서 거짓이지만 $w2$ 에서는 같은 b 를 가리켜 참이 된다. 그래서 우연적인 문장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유명사도 개체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 개체개념을 도입하여 (43)을 해석하면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8) 인호가 만난 것은 미나이다.

$$id[\text{meet}(w)(d(w*))](\text{in}ho(w*)) =_{id} \text{mina}(\text{mina} = \lambda w[\text{mina}(w)])$$

개체개념도 종류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대하여 정의된 추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것”-구는 종류뿐만 아니라 개체개념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9) 강조구문에서의 “것”-구의 의미 4: “것”-구 내의 공백에 대응되는 개체개념

따라서 이것을 “것”으로 가리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것”은 인격체 개체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주장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것”-구가 인격체를 가리키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종류나 개체개념을 가리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 둘은 모든 가능세계 모든 시간에 대하여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종류가 같든지 두 개체개념이 같다는 주장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⁹ 따라서 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계사구가 어떤 개체의 술어로 사용되면 주어와 구체적인 개체들이어야 하고 개체와 술어가 나타내는 관계는 시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제 상의 제약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실제로 관찰된다. 다음 문장들에서 미나가 어제 만나거나 산 것들을 보았고 그 이후에는 보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것”-구가 개념을 나타낸다고 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거시제 “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지만, 복수표지가 붙거나 계사구가 다른 동사구와 연결이 일어나면 과거시제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¹⁰

(50) 미나가 어제 만난 것은 학생이(었)다.

⁹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가능세계에 대하여 정의되지는 않는다. 종류이든 개체개념이든 그 값이 정의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분함수이다.

¹⁰ 국어에서 “었”이 시제인지 상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이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 염재일(2010)과 Yeom(2010) 참조.

- (51) a. 미나가 어제 산 것은 가방이(있)다.
 b. 미나가 어제 산 것들은 가방이??(있)다.
 c. 미나가 어제 산 것은 가방이??(있)고 매우 비싸보{?? 인, 있}다.

복수표지가 붙거나 술어 연접이 있으면 계사구가 술어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시제상의 제약이 생기는 반면에,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 “것”-구가 시간 상의 제약이 없는 것을 가리키게 되고 과거시제표지가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과거시제표지가 나타나도 문제가 없는 것은 동일성 관계는 과거에도 동일하게 성립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거형을 사용하는 것은 주제시(topic time)가 언제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종속절의 시제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3.5 주어의 연접

Kim and Sells(2007)는 강조구문의 주어인 “것”-구가 인격체를 가리킬 때는“(ㄱ)나”로 연접될 수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어떤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본 논문의 분석을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사구가 술어적이면 두 개의 “것”-구가 연접을 이루어도 문제가 없다.

- (52) 인호가 산 것과 진호가 산 것은 (둘 다) 가방이었고 비싸보였다.

반면에 “것”-구가 사람을 나타낼 때에는 그렇지 않다.

- (53) ?? 인호가 만난 것과 진호가 만난 것은 학생이다.

이것은 “것”-구가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 복수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다. “것”-구가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 계사구 앞의 구는 술어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동일성 문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장이 이상한 것은 “것”-구가 연접을 이루면 술어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것”을 “사람”으로 바꾸면 문장이 좋아진다.

- (54) 인호가 만난 사람과 진호가 만난 사람은 학생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것”-구가 인격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것”-구가 연접이 되면 왜 개념이 아닌 개체를 나타내는가에 대하여 답해야 한다.

답은 동일성 문장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것”-구가 아니더라도 동일성 문장에서 주어가“(ㄱ)나”로 연접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55) a. 인호와 진호는 학생이다.
 b. ?? 인호와 진호가 창수이다.¹¹

¹¹ 한 익명의 심사자는 “인호와 진호가 각각 창수이다”는 괜찮다고 한다. 본인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상하다. 결국 인호와 진호가 같은 사람이고 화자가 이미 이를 알고 말하는데 “각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55a)에서는 “학생”이 술어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고 이때는 “인호”와 “진호”가 연결되어도 문제가 없다. 이것은 “학생”이 술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계사 앞에 고유명사가 올 때는 술어로 해석할 수는 없고 동일성 문장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문장이 동일성 문장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연결구조가 배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ㄱ)나”는 기본적으로 배분적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도”와 비교할 수 있다. “도”는 기본적으로 배분적으로 해석되고, 그래서 강조구문에서 “것”-구가 인격체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 (56) a. 인호도 진호도 (모두) 창수다.
- b. 인호가 만난 것도 진호가 만난 것도 {창수, 학생}이다.

그래서 억지로 group을 형성하도록 하면 “도”를 쓰는 문장이 이상해지고, “(ㄱ)나”를 쓰는 문장은 문법적이다.

- (57) a. 인호도 창수도 그 둘을 (?? 함께) 들었다.
(= 인호도 그 둘을 들고, 창수도 그 둘을 들었다.)
- b. 인호와 창수가 그 둘을 (함께) 들었다.

“도”가 group 해석을 받지 않는 것은 “도”가 두 개체를 합친 복수개체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대비해서 “과”는 group 해석을 허용하고 이것은 복수개체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복수표지 “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ㄱ)나”는 복수개체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복수개체는 복수개체를 취하는 술어와 함께 쓰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것”-구가 인격체를 가리켜야 하는 경우 왜 “(ㄱ)나”로 연결구조를 이루지 않는지를 설명하게 해준다. “(ㄱ)나”로 연결된 연결구조는 개념이 아니라 복수개체를 나타내야 하고 개체수준에서 “것”이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ㄱ)나”가 개체만 복수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것”-구가 종류로서 직업을 나타내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런 경우 “것”-구가 “(ㄱ)나”로 연결되면, 두 개의 직업을 말하게 되므로 하나의 직업인 “의사”와 동일성 문장이 될 수 없다.

- (58) a. ? 인호가 되고 싶은 것과 창수가 되고 싶은 것은 의사였다.
- b. 인호가 되고 싶은 것도 창수가 되고 싶은 것도 의사였다.

(58a)에서 “의사”가 술어가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의사는 원하는 직업 중에서는 특정한 직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성 문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만약, “(ㄱ)나”로 연결된 두 “것”-구가 배분적으로 해석된다면 두 개의 동일성문장이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이 이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문장이 이상한 것은 연결구조가 동일성 문장에서 배분적 해석을 잘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58b)에서는 “도”가 배분적으로 해석되어 두 개의 동일성 문장으로 이해되므로 문장이 좋은 것이다.

4. 지시성 위계와 역강조구문

지금까지 “것”-구가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 강조구문은 동일성 문장이라고 하였는데 한 가지 더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이 경우 역강조구문이 이상해지는 것이다.

(59) ?? 미나는 인호가 만난 것이다. (= 3a)

비교: 인호가 만난 것은 미나이다.

이 문장이 아주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람을 “것”으로 표현한 것 때문이다. 이것은 역강조구문에서는 “것”이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면 왜 이것이 동일성 문장으로 해석되지 않는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Heller(2005)에 의하면 강조구문의 한 특징으로 전제부, 즉 본 논문에서의 “것”-구보다 계사 앞 명사구가 지시성 (referentiality) 이 높아야 한다는 일반적 제약을 제안하고 있다.

(60) 지시성 위계 (referential hierarchy)

고유명사 > 보통명사한정기술 > 불완전명사한정기술 > 자유관계절

강조구문에서의 “것”-구는 불완전명사한정기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강조구문에서는 계사와 같이 쓰이는 명사구가 지시성 위계에서 더 높아야 하는 제약을 가지는 것이라는 관찰을 한다. 그래서, 영어에서 (61b)가 정상적인 문장이고 (61a)는 특별한 억양을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61) a. Dan is my next-door neighbor.

b. My next-door neighbor is Dan.

(61b)가 전형적인 어순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전형적인 어순이 아니면 계사가 이루는 구가 술어로 사용되는 것을 Higgins(1973)의 시험방법을 사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62) a. Dan is my next-door neighbor and is Italian.

b. Dan is my next-door neighbor and Bill is too.

c. Dan is my next-door neighbor and Bill ... my hairdresser.

(63) a. *My next-door neighbor is Dan and is Italian.

b. *My next-door neighbor is Dan and my hairdresser is too.

c. *My next-door neighbor is Dan and my hairdresser ... Bill.

이것은 전형적인 동일성 문장의 어순이 아닌 경우 계사구가 술어적 성격을 지녀 다른 술어와 연결구조를 이룰 수 있는데 반해서 전형적인 동일성 문장의 어순이 되면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국어자료에 적용하면, “것”-구가 주어로 쓰이지 않고 계사와 함께 쓰이면 이것은 술어적으로 쓰여야 하고, 술어로 쓰이는 “것”은 비인격체의 개체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술어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술어의 연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64) a. 의사는 인호가 되고 싶은 것이고 장래가 유망한 직업이다.
- b. 이 사진은 인호가 찍은 것이고 이번 사진전에 출품할 것이다.

(3b)는 “의사”가 사람을 나타내지만 직업 중의 하나로 나오는 것이어서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되는데 (64a)에서처럼 술어로서 연접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4b)에서도 “것”-구의 연접을 통하여 술어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강조구문에서 “것”-구가 술어적으로 쓰이므로 (3a,c)에서처럼 주어가 인격체이면 모두 문장이 이상한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강조구문에서 “것”-구가 사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예외적인 구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강조구문에서의 “것”-구도 인격체를 가리키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은 구문들에서 실제로 “것”-구가 가리키는 것은 각 가능세계에 실제로 사는 인격체가 아니라 모든 가능세계에 정의될 수 있는 추상적 개념들이라는 것을 보였다. 추상적인 개념은 종류 혹은 특성이 무생물로 취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인격체가 아닌 것이다. 이런 점에서 1장에서 제기한 문제에서 우리는 가설 2를 유지하며 좀 더 단순한 문법을 가정할 수 있다. 만약 “것”이 정말로 인격체를 가리키려면 구체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인격적인 개체들을 가리켜야 한다. 그리고 강조구문에서 “것”-구가 구체적인 개체를 가리키려면 계사 앞에 오는 표현이 술어여야 하는데, “것”-구가 사람을 나타낼 경우에는 항상 동일성 문장으로만 해석된다.

References

양정석. 2008. 한국어 시간요소들의 형태통사론. *언어* 33-4. 693-722.

염재일. 2010. ‘였’의 중의성. *언어학* 58. 237-264.

염재일. 2012. 국어에서의 수와 복수 어미의 사용. *어학연구* 48-3. 435-462.

Chierchia, Gennaro. 1998. Reference to kinds across languages. *Natural Language Semantics* 6. 339-405.

Cho, Sungdai, John Whitman, and Yuko Yanagida. 2008. Clefts in Japanese and Korean. Paper presented at Chicago Linguistics Society (CLS) 44, Chicago.

Heller, Daphna. 2005. *Identity and Information: Semantic and Pragmatic Aspects of Specificational Sentences*. Ph.D. dissertation, Rutgers University.

- Higgins, F. Roger. 1973. *The Pseudocleft Construction in English*, Ph.D.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
- Hiraiwa, Ken, and Shinichiro Ishihara. 2002. Cleft, Sluicing and 'No da' Construction in Japanese. In Tania Lonin, Heejeong Ko and Andrew Nevins (eds.),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43. 35-54. Cambridge, Mass.
- Jacobson, Pauline. 1994. Binding Connectivity in Copular Sentences, in Mandy Harvey and Lynn Santelmann (eds.), *Proceedings of SALT IV*. pp. 161-178, Cornell University, Ithaca.
- Jhang, Sea-Eun. 1995. *Headed Nominalizations in Korean: Relative Clauses, Clefts, and Comparatives*. Seoul, Hankwuk Publishers.
- Kang, Bosook. 2006. Some peculiarities of Korean *kes* cleft constructions. *Studia Linguistica* 60. 251-281.
- Kim, Jong-Bok, and Peter Sells. (2007). Some remarks on Korean nominalizer *kes* and information structure.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7. 479-494.
- Klein, Wolfgang. 1994. *Time in Language*. London: Routledge.
- Koizumi, Masatoshi. 2000. String vacuous overt verb raising.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9. 227-285.
- Na, Younghee and Jeffrey Huck. 1993. On the state of certain island violations in Korea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181-229.
- Partee, Barbara H. 1986. Noun phrase interpretation and type-shifting principles. In Jeroen Groenendijk, Dick de Jongh and Martin Stokhof (eds.), *Studies in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and the Theory of Generalized Quantifiers*. 115-143. Dordrecht: Foris.
- Sharvit, Yael. 1997. *The Syntax and Semantics of Functional Relative Clauses*, Ph.D. dissertation, Rutgers University.
- Yeom, Jae-Il. 2010. Semantics and Pragmatics of *-es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46.2. 199-236.

접수 일자: 2014년 10월 31일

수정 일자: 2014년 12월 8일

게재 결정: 2014년 12월 16일